구약논단

제 16권 4호(통권 38집) 2010년 12월 31일

소 형근(남서울대)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54

본 논문은 역대기의 족보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밝힐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역대기 족보 목록은 다양한 자료들의 편집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이중 편집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초기 자료층에 의한 다윗 왕조의 재건과 후기 자료층에 의한 국민적 통합(온 이스라엘 사상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통합과 화합)을 꾀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So, Hyeong-Geun The Meaning of the Chronicler's Genealogy in the Jewish Community for the postexilic period 54

www.kci.go.kr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1)]

소 형근 | 남서울대

1. 서론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족보'(族譜)를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혹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족보는 통상적으로 특정 가계(family tree)가 어떤 구성원으로 형성되었고, 어떤 혈통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지, 그 가계의 진정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러한 기록 이면에는 그 가계의 우수성을 다른 가계에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약성서의 족보 기록은 한 사람의 조상을 중심으로 가족(family)에서 씨족(clan)으로, 씨족에서 더 넓은 의미의 민족(nation) 개념으로 확장되어 내려오는 긴 씨 흐름을 밝힐 목적이 분명하다.[2)] 그러나 성서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혈통적 관계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마 1장에는 하향식 족보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

1) 본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연구진흥지원처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논문이다.
2) 최 종진, "역대기의 족보 의미와 기록 형식에 대한 고찰," 「신학논총」 18집(2006), 350쪽.

www.kci.go.kr

는 족보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눅 3장에서는 상향식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담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클레이(W. Barclay)는 마태가 그리스도의 왕적인 관점에서 족보를 서술했고, 누가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관점에서 족보를 서술했다고 말한다.[3] 그러나 버클레이(W. Barclay)의 주장은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고대 족보 기록은 혈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혈통 외적 요소인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요청에 의한 기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서의 가장 후대 족보 목록들 중의 하나인 대상 1 - 9장(*genealogische Vorhalle*)을 통해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족보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역대기는 기존 자료들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마지막으로 역대기 족보 목록의 핵심에는 어떤 계층이 위치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족보 이해와 목적

고대근동 사회에서 특정 민족들을 구분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약성서에서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종종 민족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기도 한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외에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참고, 신 7: 1; 수 3: 10; 수 24: 11; 대상 1: 14; 느 9: 8),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인으로 취급되었다.[4] 이것은 고대인들의 정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름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만의 개별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5]에서도, 고대 이집트[6]에서도, 고대 페르시아[7]에서도,

---

3) W. Barclay, *The Gospel of Luk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40쪽.

4) K. L. Nol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한국구약학총서 10)」 소 형근 역,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9), 19쪽.

5) 고대 그리스에서는 족보가 최소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신화적 관점에서 기원된 족보가 있고, 둘째는 확장된 유전학적 관점에서 기원된 족보가 있다. 참고, W. Haedicke, *Die Gedenken der Griechen über Familienherkunft und Vererbung*, (Halle: Akad Verlag, 1937), 56-61, 80-86, 138-141쪽.

www.kci.go.kr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다(특히 오경). 그런데 고대 오리엔트 시대 족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족보가 국가 이전 시대나, 반 유목민 사회에서, 혹은 분절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고대 오리엔트의 경우, 족보들의 대부분은 발달된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후대의 산물들이었다.[8]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인이나, 이집트 인 혹은 페르시아 인은 이 족보들을 하나의 문학적 유형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역대기 족보 목록은 동시대 고대 근동의 족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사소한 세대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에서는 족보에 다신론적 인간 이해(polytheistische Propria)가 나타나지만, 대상 1 - 9장에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고대 오리엔트의 족보들이나 구약성서의 족보는 주변 문화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장소나, 땅에 대한 언급, 혹은 직업 군(제사장들, 예언자들, 의사들 혹은 수공업자들)의 언급을 통해 족보를 통한 통치의 합법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약성서의 족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족보가 혈통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법률적, 종교적, 사회적, 역사적, 심리적, 군사적, 종교-신학적 관점에서 이해되며,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족보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9]

---

6) 고대 이집트의 확장된 족보들이 제22왕조 시대(기원전 965-750년)에 이집트 문헌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집트의 족보 기록은 특별히 페르시아 시대에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위대한 제사장 가문들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새긴 글들(inscriptions)에서도 나타났다. 참고, R. R. Wilson,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YNER 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126쪽.

7)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 비하면 페르시아는 족보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아케메니드 시대의 베히스툰 자료(Behistun inscription)에서 족보의 일부를 알려주고 있다. R. Borger & W. Hinz, "Die Behistun-Inschrift Dareios' des Großen," *TUAT* I, (Gütersloh: Mohn, 1983-1985), 419-450쪽.

8) M. Oeming, *Das wahre Israel: Die genealogische Vorhalle 1 Chronik 1-9*, (Stuttgart: Kohlhammer, 1990), 34-36쪽.

9) 윗글, 35쪽; 존슨(M. D. Johnson)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족보의 기록 목적을 아홉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서로 혈족 관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족보가 기록되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롯의 족보(창 19: 36-38), 북부 아라비아의 유목민을 총칭하는 이스마엘의 족보(창 25: 12-16), 에돔과 관련된 에서의 족보(창 36장)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 기원과 관련된 독립된 자료들이 서로 논리 정연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사장적 톨레돗(*Toledoth*) 자료들을 서로 연결시키게 되었다. 셋째, 전승 자료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시

www.kci.go.kr

고대 사회의 족보들은 '고정된'(fixed) 자료가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fluid) 자료였다.[10] 예를 들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었으며(삼상 1: 1), 사무엘은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들을 두었다(삼상 8: 2). 이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조 시작을 전후하여 실로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활동한다(삼상 2: 18). 에브라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왕조 이전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예가 사사 시대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산당 이야기 가운데 나온다(삿 17장).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는 레위 계통임이 입증되어야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할 수 없었던 자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지성물(קֹדֶשׁ הַקָּדָשִׁים 코다쉬 하카다쉼)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스 2: 62-63). 이렇게 출신 성분이 분명한 자만이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대가 포로 이후였다. 따라서 역대기 기록자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서술하면서 왕조 이전 시대 엘리(Eli) 제사장에 이어 에브라임 출신 나실인 사무엘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편입시켰다(대상 6: 27-28). 이처럼 구약성서의 족보는 혈연 관계에 있어서 유동적이었으며, 때로는 이름이 삭제되기도 했고,[11] 때로는 추가되기도 했

간적인 공백에 대한 연속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족보가 사용되었다. 창조 이야기와 족장 시대 사이에 시간적 공백을 연결해 주는 것이 창 5장의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이며, 창 11장의 노아에서 데라까지의 족보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넷째, 세상의 시간적 흐름과 구약의 족보가 서로 연대기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창 5장은 홍수가 일어난 시점을 설정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며, 창 11장은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한 연대 설정을 위한 의도다. 다섯째,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이다. 구약성서의 인구조사는 군사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대상 2-8장 역시 군사 지도자들의 목록으로 봐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족보가 기술되었다(대상 5: 18-22; 7: 1-5, 6-12, 40; 8: 40 등). 여섯째, 개인의 지위나, 혹은 훌륭한 집안과 관련된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이다. 다윗의 족보(대상 3: 10-24), 사무엘의 족보(삼상 1: 1), 사울의 족보(삼상 9: 1) 등이 좋은 예이다. 일곱째, 동일 민족성을 세우고, 보존하려는 목적이다. 스 9장 2절에는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 "거룩한 자손"(holy seed)의 순수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덟째,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역대기나,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귀환자 목록을 기록하는 이유는 국가적 재난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알리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아홉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려는 의도다. M. D. Johnson,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ing of the Genealogies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77-82쪽.

10) R. R. Wilson, 윗글, 38-45쪽.

11) 지파의 족보 목록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삭제되는 경우는 이름의 기능(의미)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W. L. Osborne, *The Genealogies of 1 Chronicles 1-9*, (Dropsie: Dropsie University Press, 1979), 113-114쪽.

www.kci.go.kr

다.[12]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는[13] 포로 이후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1 - 9장의 족보 목록 또한 제 2 성전 시대 유대교의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역대기의 족보 자료 활용

구약성서 역대기 족보 목록에 사용된 자료들(*Vorlage*)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면 역대기 족보 편집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역대기는 족보에 대한 이전 자료들을 재인용하기도 했고, 이전 자료들을 편집, 요약하기도 했으며, 이전 자료들을 해석한 예들이 나타난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전 자료들을 재인용한 예들

이전 자료들을 활용하여 후대 편집자가 재인용했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제안하면, 맥이버(R. K. McIver)와 캐롤(M. Carroll)이 사복음서 연구(Synoptic Gospels)를 통해 얻은 결론을 수용하고자 한다. 맥이버와 캐롤은 사복음서 연구를 통해 한 작품의 저자가 다른 저자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썼는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만약 경구(aphorism), 시(poetry), 노랫말(words to a song)이 아닌 것 중에 정확히 16개의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이 동일하게 연속된다면, 그것은 이전 자료들(written document)로부터 재인용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말한다.[14] 본 논문에서는 맥이버와 캐롤의 주장을 수용하여 역대기가 사용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세기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목록(table of

12) 지파의 족보 목록에 특정인이 추가될 때는 실제 혈연 관계와는 무관하다. R. Braun,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1986), 4쪽.

13) 역대기의 기록 시기에 대한 논쟁은 노퍼스의 책을 참고하라. G. N. Knoppers, *1 Chronicles 1-9* (AB 12), (New York: Doubleday, 2004).

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맥이버와 캐롤의 연구를 참조하라. R. K. McIver/M. Carroll, "Experiments to Develop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Written Sources, 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Synoptic Problem," *JBL* 121/4 (2002), 680쪽.

www.kci.go.kr

nations)(창 10장), 그두라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창 25: 1-4),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창 25: 13-16), 에서의 자손들에 족보(창 36: 1-30, 40-30), 그리고 에돔의 통치자들에 대한 목록(창 36: 31-39)이 대상 1장과 비교할 만한 좋은 예들이다. 그러나 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들 중 대상 1장 1-3절(아담에서 라멕까지), 대상 1장 24-27절(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대상 1장 28절(아브라함의 자손들), 대상 1장 34절(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창세기와 평행 본문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자료들은 역대기만의 특별 자료로 분류된다. 그리고 반대로 창세기에 있는 자료들 중에 대상 1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자료들 또한 많이 있다.[15] 대상 1장의 족보 편집자가 창세기 자료들을 재인용한 본문은 여섯 본문인데, 맥이버와 캐롤의 주장대로 이 여섯 본문에서 16개 이상의 연속 단어 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창 10장 13-15절과 대상 1장 11b-13절의 19개 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하고, 둘째, 창 10장 15-18a절과 대상 1장 13b-16절이 연속해서 21개 단어가 일치한다. 셋째, 창 10장 24-28a절과 대상 1장 18-22a절의 39개 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하고, 넷째, 창 36장 32b-34절과 대상 1장 43a-45절이 연속해서 18개 단어가 일치한다. 다섯째, 창 36장 36-39c절과 대상 1장 47-50a절의 24개 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하고, 여섯째, 창 36장 40-43a절과 대상 1장 51b-54절이 연속해서 21개 단어가 일치한다.[16] 그러나 대상 1장 11-16절은 역대기 필사자의 오류로 인한 단어들(misreading letters)[17]까지 포함한다면, 창 10장 13-18a절과 무려 45개의 단어들이 일치한다. 그리고 대상 1장 18-22절은 역대기 필사자의 오류로 인한 단어들을 포함한다면, 창 10장 24-28절과 44개 단어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셈이다.[18] 맥이버와 캐롤의 주장 대로 본다면, 역대기가 이전 자료(*Vorlage*)를 자신의

15) 예를 들면, 창 10장 5, 9-12, 18b-21, 30-32절, 창 25장 3b, 5-12, 17-18절, 창 36장 1-9, 15-19, 25b, 29b-30, 43b절이다.

16) J. T. Sparks, *The Chronicler's Genealogie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1 Chronicles 1-9* (Academia biblica 28), (Atlanta: Society Biblical Literature, 2008), 298쪽.

17) 예를 들면, 창 10장 13절의 לודים(루딤/루딤)이 대상 1장 11절의 לודיים(루디임/루딤)으로 'י'(요드)가 필사자에 의해 추가되고, 창 10장 15절의 צירן(찌돈/시돈)이 대상 1장 13절의 וְצִידוֹן(찌돈/시돈)으로 'ו'가 필사자에 의해 추가된 경우다.

18) 그 밖에도 대상 1장 43b-46a절이 역대기 필사자의 오류로 인한 단어를 포함한다면 창 36장 32b-35a절과 연속해서 35개 단어가 일치하고, 대상 1장 47-50a절은 필사자의 오류 단어를 포함하면 창 36장 36-39c절과 24개 단어가 일치한다. 또한 대상 1장 51b-54절은 필사자의 오류 단어를 포함해서 창 36장 40b-43a절과 연속해서 25개 단어가 일치한다.

www.kci.go.kr

본문 안에 (거의) 수정 없이 재인용한 것이다. 이런 재인용은 대상 1장에서 40% 이상이나 된다(대상 1장의 54개 절들 중 22개 절에 해당된다). 이것은 역대기가 이전 자료들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2) 이전 자료들을 편집한 예들

역대기는 족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 자료를 더 잘 이해하도록 편집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창 25장 3절의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וְיָקְשָׁן יָלַד אֶת־שְׁבָא וְאֶת־דְּדָן)라는 표현이 대상 1장 32절에서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וּבְנֵי יָקְשָׁן שְׁבָא וְדָדָן)라고 쓰고 있다. 이는 역대기 편집자가 기존 자료를 자신의 표현법에 맞게 새롭게 편집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 36장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 이러하니"(וְאֵלֶּה שְׁמוֹת אַלּוּפֵי עֵשָׂו)라는 표현을 대상 1장 51절에서는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וַיִּהְיוּ אַלּוּפֵי אֱדוֹם)로 사용한다. 역대기 편집자는 대상 1장의 족보를 통해 야곱의 형제 에서에 대한 강조보다는 세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강조하기 위해 '에돔' 족속(나라) 사용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 36장 12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첩(concubine) 딤나(Timna)가 대상 1장 36절에서는 엘리바스의 아들(son)로 나온다. 아마도 창 36장 12a절("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에 대한 자료를 역대기 편집자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대기 족보 목록에는 또 다른 편집이 나온다. 대상 4장에는 유다 자손 족보가 언급되는데(23절까지), 고스(קוֹץ)의 아들들에 대한 목록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יַעְבֵּץ)에 대한 일대기가 간략하게 언급된다. 엄밀히 말하면 대상 4장 9-10절은 대상 4장의 족보 목록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며,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출생(9절)을 기도로 극복하여 축복의 삶으로 이끈 모범이 된다.[19] 대상 5장 18-22절 또한 44,760명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자손이 최소 10만 명이 넘는 하갈 사람과 여두르, 나비스, 노답 사람과 싸워 승리함을 보도한다. 소수의 이스라엘 지파 구성원이 다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19) 야베스는 히브리어 '오쩨브'(עֹצֶב/고통[슬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야베스는 야베스 족속의 시조로 보인다. 참고, E. L. Curtis, *The Books of Chronic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6), 107쪽.

www.kci.go.kr

마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20]고 역대기는 말한다. 앞서 언급한 족보 목록 안에 나타난 역대기의 기도 신학은 대상 1 - 9장이 단순 족보 나열이 아님을 알려준다.[21]

이것은 역대기 기록자가 이전 자료들(단어들 혹은 절들)에 대해 자유롭게 편집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역대기 기록자는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시대적 상황에 필요에 따라 자료를 삭제, 변경, 첨가했던 자였다.[22] 그래서 역대기 기록자를 편집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3) 이전 자료들을 요약한 예들

역대기 족보 목록이 오경의 족보 자료들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상 1장의 족보에서 창세기의 족보 자료와 전혀 다른 형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평행 본문이 아닌 자료들이 언급되고 있다. 즉 대상 1장 1-3절, 24-27절, 28절, 34절이 그렇다. 대상 1장 1-3절과 24-27절은 아담에서 라멕까지, 그리고 셈에서 아브람(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순수한 이름 목록이다. 이 목록의 면면을 보면 각 개별 인물들 사이의 혈통적 관계들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 역대기의 이런 자료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독립된 족보 자료들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이 친족 관계(relationship)를 말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23] 대상 1장 1-3절의 목록은 창 5장 1-32절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중 이름과 순서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대상 1장 24-27절은 27절에 나오는 "곧 아브라함"(הוּא אַבְרָהָם)이라는 설명적인 표현만 제외하면 창 11장 10-32절과 일치한다. 대상 1장 27절의 이 표현은 역대기 기록자가 이미 오경의 족보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אַבְרָם הוּא אַבְרָהָם(아브람 곧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역대기 족보에

---

20) 이 본문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BHS)의 직역은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셨다"(they cried to God in battle, and He was entreated of them)이다.

21) 역대기의 족보 목록 편집은 시므온 자손 나열에서도 볼 수 있다. 대상 4장 24절부터 시므온의 자손들이 열거되다가(27절까지) 그들의 거주지들이 나오고(28-33절), 이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들과 정복지들로 마무리된다(34-43절).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족보 목록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역사를 간략하나마 알려주는 보도이다. 참고, E. L. Curtis, 윗글, 114-117쪽.

22) J. T. Sparks, 윗글, 302쪽.

23) R. R. Wilson, 윗글, 10쪽.

www.kci.go.kr

나타난 요약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창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 목록에는 반복적인 양식(formula)이 있다. 'A는 B세에 C를 낳았고, C를 낳은 후 D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A는 F세를 살고 죽었더라.' 역대기 기록자는 이러한 기존의 양식을 제거하고, 창세기의 목록들 중 단지 이름만을 사용할뿐더러, 이름들 사이의 친족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 또한 제거했다. 윌리암슨(H. G. M. Williamson)은 이에 대해 역대기 기록자가 직접 혈통만을 서술하기 위해 대상 1장 1-3절의 기록 형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24] 그러나 역대기 시대는 이미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 친족간의 상호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가 창세기의 양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 또한 크다. 그렇지 않았다면 역대기의 족보 목록에 창세기의 친족 관계가 분명히 언급되어야만 했다.[25]

대상 1장 28절과 34절은 창세기와는 평행 본문이 없는 족보 본문이다. 대상 1장 28절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온다. 그러나 창 21장 8-11절의 본문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나오지만, 족보 형식이 아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 체 본문이다. 그리고 창 25장 9절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지만, 이 본문 역시 족보 형식이 아닌, 아브라함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이야기 체 본문이다. 따라서 대상 1장 28절("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은 역대기만의 독특한 요약 보도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대상 1장 34절이다. 대상 1장 34절("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은 창세기와 평행 본문이 없으며, 오직 역대기만의 독특한 족보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네 본문(대상 1: 1-3, 24-27, 28, 34)은 분명한 친족 관계가 빠져 있거나, 또는 창세기 족보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역대기만의 특별한 표현 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역대기가 기존의 자료들 안에서 새로운 족보 형식으로 요약적 설명(summary explanation)을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전 자료를 해석한 예들

---

24)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62-63쪽.

25) J. T. Sparks, 윗글, 303쪽.

www.kci.go.kr

역대기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재인용하지 않고, 해석한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대상 1장 34절에서 역대기는 이삭의 아들들을 '에서와 야곱'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עֵשָׂו וְיִשְׂרָאֵל)이라 표현한다.[26] 역대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두 번(대상 16: 13, 17) 사용하는데, 그 두 번도 시 105편 6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사용한 경우이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동일시하며 사용한 경우다.[27] 이것은 역대기가 두 가지 용어 중 자신이 선호하는 한 가지 용어에 더 집중적으로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역대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 족보에 어울리는 자리 매김을 위해 역대기는 야곱 대신 이스라엘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28] 두 번째는 그두라에 대한 해석이다. 창 25장 1절에 나오는 그두라(Keturah)는 아브라함의 부인(אִשָּׁה 이쉬)으로 나온다. 창 2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첩들(복수 형)이 있었고, 그 첩들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 내쫓았다. 창 25장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들의 가족 묘에 아브라함을 매장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창세기 이 본문에 그두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상 1장 32절에는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부인(אִשָּׁה 이쉬)이 아닌, 아브라함의 '첩'(פִּילֶגֶשׁ 필레게쉬)으로 불린다. 그두라의 신분이 역대기에서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대상 1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을 열거하고 있다. 대상 1장 32절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표현 상 이들은 그두라의 아들들로 나오고 있다(יָלַד 알다/그녀가 낳았다). 이것은 역대기가 창세기에서 쫓겨난 그두라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대기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창세기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창 23장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 25장에서 그두라를 부인(אִשָּׁה 이쉬)으로 맞이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 외에 첩들이 있었다(창 26: 5). 아브라함은 그 첩들의 아들들을 쫓아냈고, 아브라함이 죽어 매장될 때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뿐이었으며, 첩들의

26) 창세기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하였다. 이름 변경 이후 야곱은 77회, 이스라엘은 43회 사용된다.

27) 대상 16장 12-13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대상 16장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28) J. T. Sparks, 윗글, 305쪽.

www.kci.go.kr

아들들은 없었다(창 25: 9). 그두라의 아들들 역시 없었다. 따라서 역대기는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브라운(R. Braun)은 대상 1장 32절에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역대기가 말한 것은 기록자의 해석적 관점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29] 위의 두 경우를 볼 때, 역대기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용어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전 자료들을 충실하게 재인용한 자이면서, 이전 자료들을 편집한 편집자였다. 또한 이전 자료들에 대한 요약자이면서, 이전 자료들에 대한 해석자였다.

4. 역대기 족보의 의미

1) 유다(다윗) 자손에 대한 강조

포로 이후 기록인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신정론(theocracy)에 앞서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 이는 초기 자료층으로 기원전 6세기 말경에 해당되는 스룹바벨 시대를 반영한 자료들로 보인다. 이 초기 자료층에는 종교적으로 흠 없고, 신실한 왕이 나와 유다 공동체(Yehud Community)를 통치해 주길 바라는 포로 이후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이들에게 롤모델(role model)은 다윗과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역사 기록물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30] 다윗-솔로몬을 이상적인 왕(a ideal king)으로 만들려고 의도했다.[31] 역대기가 족보를 서술함에 있어서 전체 아홉 장의 족보 중 세 장(대상 2: 3 - 4: 23)이라는 방대한 분량에 유다 자손의 족보를 할애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방증이 된다. 그런데 역대기의 초기 편집 시기가 논란이 된다. 역대기의 초기 편집 시기에 대해 로트슈타인(J. W. Rothstein)과 핸엘(J. Hänel)은 기원전 432년경에 있었으며,[32] 갈링(K. Galling)은 역대기의 초기 편집 시기가 기원전 5세기

---

29) R. Braun, 윗글, 22쪽. 윌리암슨은 그두라의 아들들 족보는 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본다.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43쪽.

30) 이 사야, 「간추려 읽는 구약성서」(서울: 북코리아, 2010), 74-75쪽.

31)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22집(2006년 12월), 80-97쪽.

32) W. Rothstein/J. Hänel, *Kommentar zum ersten Buch der Chronik* (KAT 18/2), (Leipzig:

www.kci.go.kr

가 아니라, 기원전 300년경에 있었던 반 사마리아 사상을 반영하여 역대기의 초기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33] 필자는 로트슈타인과 핸엘의 주장이나, 갈링의 주장이 아닌 대상 1 - 9장에 나타난 족보 목록의 초기 편집 시기를 기원전 400년경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 목록 중 가장 핵심에 서 있는 본문이 대상 3장에 나오는 다윗 후손의 족보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 다윗 후손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다윗 후손의 마지막은 에료에내(אֶלְיוֹעֵינַי)와 그의 아들들 7명을 언급하며 마무리된다. 대상 3장 17절에 나오는 "사로잡혀 간 여고냐(=여호야긴)"로부터 일곱 세대 이후의 시기를 추정하면 대략 기원전 400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가 된다.[34]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 뿐 아니라, 구약성서 역사가들 또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은연중에 알리는 습관이 있음[35]을 고려한다면, 다윗 후손에 대한 대상 3장의 보도는 기원전 40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에게 있어서 반 사마리아 정서는 이미 주전 5세기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6] 유다 공동체는 제 2성전을 짓는 과정(기원전 536년-515년)에서 땅의 백성(עַם־הָאָרֶץ 암-하아레츠)과 갈등했고(스 4: 4),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기원전 445년) 호른 사람 산발랏에 의해 견제 당했다(느 2: 10). 따라서 대상 1 - 9장의 초기 편집 시기는 기원전 6세기 말경에 있었던 스룹바벨에 대한 기대감과 기원전 5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에스라-느헤미야 시대 유다 정통주의와 반 사마리아 환경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원전 400년경을 전후하여 역대기 족보의 초기 편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레위 자손에 대한 강조

Deichert, 1927), LIX쪽; 로트슈타인과 핸엘은 대략 30년이 지난 기원전 400년경에 후기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3) K. Galling,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8-17쪽.

34) 커티스(E. L. Curtis), 벨텐(P. Welten), 빌리(Th. Willi), 야펫(S. Japhet) 등이 이에 동의한다.

35) 역대기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 자료로써 예언자들의 목록들(대하 9: 29), 열왕기 주석서(대하 24: 27),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대하 27: 7) 등을 제시한다.

36) 김 윤이는 역대기의 초기 편집 시기를 유다 공동체의 반 사마리아적 운동이 야기된 "페르시아 후기로부터 헬라 초기 알렉산더 전후 시기"라고 주장하지만 반 사마리아적 움직임은 이미 포로 이후 초기부터 있어왔다.

www.kci.go.kr

포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공동체에는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론적 사상으로 신학적 주제가 변한다(대상 17: 14).[37] 이것은 역대기가 서로 다른 자료층들의 결합물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역대기의 사상적 전환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바이다. 그러나 역대기의 초기 자료층이 '성전'(temple)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윗(성전 건축 준비자)과 솔로몬(성전 건축자)을 이상적인 왕으로 강조했듯이,[38] 역대기의 후기 자료층 역시 '성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역대기의 후기 자료층에는 신정론적 자료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는 '온 이스라엘'(כָּל־יִשְׂרָאֵל) 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삼하 7장 16절("네 집{בֵּיתֶךָ 베트카}과 네 나라{מַמְלַכְתְּךָ 맘라크트카}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에 대한 변형 본문으로 대상 17장 14절에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בֵּיתִי 베티)과 내 나라(מַלְכוּתִי 말쿠티)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한다. 신명기 역사서와는 달리 역대기에서는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하나님의 집'(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세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역대기의 이러한 사상의 변화는 포로 이후 초기가 지나면서 유다 공동체에 새롭게 제기되었던 신정론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역대기의 후기 자료층에서 성전 강조는 역대기 족보 목록에서도 볼 수 있다. 역대기가 대상 1 - 9장의 족보 목록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유다 지파(대상 2: 3 - 4: 23, 특히 다윗 자손)와 레위 지파(대상 6: 1-53, 특히 아론 자손),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대상 9: 1-34)이다.[39] 이 본문들은 전체 족보 목록의 47% 이상을 차지한다. 대상 1 - 9장의 족보 목록 분량을 고려한다면 유다 지파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 윤이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족보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다윗 왕조'가 놓여 있다"[40]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대기를 이중 편집의 관점에

37) 소 형근, "포로 이후 초기에 나타난 왕권과 제사장권," 「구약논단」 36집(2010년 6월), 148-151쪽,

38) 역대기의 특별 자료층에 해당되는 대상 28-29장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를 마친다. 다윗은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대상 28: 11-12),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옥돌 외에 다윗이 사유한 금,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게 된다(대상 29: 1-5). 이러한 준비된 것들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대하 2: 17 - 5: 1). 역대기의 초기 자료에 해당되는 다윗-솔로몬의 이상적 통치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떼 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39) 소 형근, 「구약성서 역대기」 (서울: 은성출판사, 2006), 59-60쪽.

www.kci.go.kr

서 이해하고, 동시에 역대기의 족보 목록을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 역대기 족보 목록의 중심에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 계 자손들이 족보 목록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역대기 족보 목록을 구조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A 대상 1: 1-53 이스라엘의 기원(세계 족보)
B 대상 2: 1-2 이스라엘의 아들들
C 대상 2: 3 - 4: 23 유다 지파(다윗 자손들)
D 대상 4: 24 - 5: 26 지파들(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E 대상 6: 1-48 레위 지파
F 대상 6: 49-53 제의 지도자들(아론 자손들)
E´ 대상 6: 54-81 레위 지파의 성읍들

D´ 대상 7: 1-40 지파들(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아셀)
C´ 대상 8: 1-40 베냐민 지파
B´ 대상 9: 1a 온 이스라엘이 계수됨
A´ 대상 9: 1b-34 새 이스라엘

역대기가 다윗 왕권을 강조하고, 남 왕국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대기의 중심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 역대기의 자료층을 친 제사장적 본문들과 친 레위적 본문들로 보려는 시도는[41] 역대기가 다분히 성전(혹의 제의)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거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기의 핵심 주제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 더욱 중요한 그룹들일 것이다. 성전 봉사자들의 중요성이 역대기의 족보 목록의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상 1 - 9장의 족보 목록은 교차대구 구조(chiastic structure)를 보여

40)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 신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2006년 2월), 104쪽. 그와는 달리 최 종진은 "역대기는 이 다윗 왕조와 레위 지파에 관한 족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최 종진, 윗글, 377쪽.

41) 김 윤이, 윗글(2006년 12월), 80-97쪽; 민 경진, "역대기와 레위인," 「부산장신논총」 5집(2005년), 1-16쪽; 민 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집(2007년 12월), 112-128쪽.

www.kci.go.kr

준다. 족보 목록의 전체적인 틀은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세계 족보(아담으로부터)로부터 시작(대상 1: 1-53)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건설하는 족보(대상 9: 1b-34)로 마친다. 그런데 족보 목록의 교차대구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서게 되고, 가장 강조되는 단락은 단연 제의 지도자들(특히, 아론 계 자손들이자, 사독 계보)이다. 물론 아론 계 자손들(제사장)이 그 중심에 서지만, 이들 목록 앞뒤로 전체 레위 지파 목록과 레위인들이 할당받았던 성읍이 '인쿨루지오'(Inclusio)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역대기의 족보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기 초기 자료층만을 말하는 것이며, 역대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역대기는 구약성서의 그 어느 책보다 성전 중심의 책이고, 성전에서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의 책이다. 그러면 역대기의 후기 편집층 시기는 언제일까? 역대기가 유다(다윗) 자손 중심에서 벗어나고, 반 사마리아 사상에서 벗어나, 국민 총화를 위한 '온 이스라엘' 주의로 변화된 시기는 언제인가? 역대기의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헬라'라고 하는 외세에 대항해서 유다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통성과 전통적 신앙을 보존해야만 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기 후기 편집층은 안티오쿠스 4세 때 반 헬라적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42]

5. 결론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족보는 한 가족(family), 한 씨족(clan), 한 민족(nation)의 혈통적 정통성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역대기 족보가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나, 구속사적 씨 흐름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지 모른다.[43] 역대기 족보 목록은 포로 이후 시대를 반영한 신학적 자료 모음집으로 다윗 왕조의 재건과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국민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통합과 화합이 자리하고 있다.[44] 또한 역대기 족보는 세계 속의 이

42)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다 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26집(2003년, 겨울), 132-149쪽; 김 윤이, "에스라는 누구인가?," 「구약논단」 28집(2008년 6월), 103쪽.

43) 신약성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44) 역대기 족보 목록에는 북 지파인 단(Dan)과 스불론(Zebulun) 지파의 족보 목록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역대기의 족보 자료 부족일뿐더러, 포로 이후 역대기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www.kci.go.kr

스라엘(대상 1장의 세계 족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속의 예루살렘(다윗 왕조 재건에 대한 기대감), 예루살렘 안에 성전(제사장과 레위인의 통합과 화해의 자리)을 말하기 위한 의도였다.

6. 참고문헌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평택대 신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6년 2월).

_____, "에스라는 누구인가?," 「구약논단」 28집 (2008년 6월), 88-106쪽.

_____,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22집 (2006년 12월), 80-97쪽.

민 경진, "역대기와 레위인," 「부산장신논총」5집 (2005년), 1-16쪽.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26집 (2007년 12월), 112-128쪽.

소 형근, 「구약성서 역대기」(서울: 은성출판사, 2006).

_____, "포로 이후 초기에 나타난 왕권과 제사장권,"「구약논단」36집 (2010년 6월), 138-153쪽.

이 사야, 「간추려 읽는 구약성서」(서울: 북코리아, 2010).

최 종진, "역대기의 족보 의미와 기록 형식에 대한 고찰," 「신학논총」 제18집(2006), 347-381쪽.

_____, 「구약성서의 족보적 연구」(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다 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26집 (2003년, 겨울), 132-149쪽.

Barclay, W., *The Gospel of Luk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Borger, R./W. Hinz, "Die Behistun-Inschrift Dareios' des Großen," *TUAT* I, (Gütersloh: Mohn, 1983-1985), 419-450쪽.

Braun, R.,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1986).

Curtis, E. L., *The Books of Chronic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6).

Galling, K.,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Haedicke, W., *Die Gedenken der Griechen über Familienherkunft und Vererbung*, (Halle: Akad Verlag, 1937).

Johnson, M. D.,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ing of the Genealogies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Knoppers, G. N., *1 Chronicles 1-9* (AB 12), (New York: Doubleday,

www.kci.go.kr

2004).
McIver, R. K./M. Carroll, “Experiments to Develop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Written Sources, 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Synoptic Problem,” *JBL* 121/4 (2002), 667-687쪽.
Noll, K. 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한국구약학총서 10)」(소 형근 역),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9).
Oeming, M., *Das wahre Israel: Die genealogische Vorhalle 1 Chronik 1-9*, (Stuttgart: Kohlhammer, 1990).
Osborne, W. L., *The Genealogies of 1 Chronicles 1-9*, (Dropsie: Dropsie University Press, 1979).
Rothstein, W. & Hänel, J., *Kommentar zum ersten Buch der Chronik* (KAT 18/2), (Leipzig: Deichert, 1927).
Sparks, J. T., *The Chronicler's Genealogie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1 Chronicles 1-9* (Academia biblica 28), (Atlanta: Society Biblical Literature, 2008).
Williamson, H. G. M.,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_____, *1 and 2 Chronic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Wilson, R. R.,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YNER 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검색어

대상 1-9장
역대기
역대기 초기 자료층
역대기 후기 자료층
족보 목록
족보 편집

투고일: 2010년 10월 10일
심사일: 2010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일

www.kci.go.kr

The Meaning of the Chronicler's Genealogy in the Jewish Community for the postexilic period

Hyeong-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Genealogies in ancient societies were not fixed material, but fluid material that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needs of the times. It is clear that genealogy in 1 Chr 1-9(= "*genealogische Vorhalle*") also reflects the chronicler's time. The Prophet Samuel, son of Elkanah was from the tribe of Ephraim in 1 Sam 1: 1, but according to 1 Chr 6: 27-28 he was from the tribe of Levi. This problem is resulted from the needs of the time by the chronicler. In the time of chronicler the only membership of the tribe of Levi could play a role as a priest (Esra 2: 62-63). Therefore it was said that the genealogy of the family of Samuel was modified.

In 1 Chr 1-9 there are materials of religious(1 Chr 6), political(1 Chr 3), and military(1 Chr 5; 7: 1-5, 6-10, 30-40) purposes and etc. For example, the genealogy of the religious sphere in 1 Chr 6 concerns legitimacay of the successor to an office(priest). The genealogies of 1 Chr 1-9 are complicated by various materials. Consequently the chronicler copied his source material as copier, edited his source material as editor, summarized his source material as summarizer, and interpreted his source material as interpretor.

www.kci.go.kr

The purpose of the genealogies in 1 Chr 1-9 is manifest in the theme of legitimacy and continuity as revealed in the thought of priesthood and theocracy. The description of David-Solomon in Chronicles was idealized, since David is described as temple-preparator and Solomon as temple-builder. The image of David-Solomon as ideal kings is associated with the idea of Jerusalem Temple,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existence in the time of chronicles. In addition the Aaronite priesthood is centered in the genealogy of 1 Chr 1-9. The genealogies of 1 Chr 1-9 are intended to speak of Israel in the World (by the world genealogy in 1 Chr 1), Jerusalem in Israel (by the expect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avidic dynasty in the post-exilic period) and the temple in Jerusalem (the place of integr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priests and levites).

Keywords

Chronicles
1 Chr 1-9
genealogical vestibule
early editor of Chronicles
second editor of Chronicles

www.kci.go.kr